

# KDC 4판의 언어류 관련 부문 개선방안 연구

## A Study on the Reform Measure for Language Class in KDC 4

김 자 후(Ja-Hoo Kim)\*

### 〈목 차〉

- |   |                           |
|---|---------------------------|
| I. 서론                                       | III. NDC 언어류 관련부문에 대한 분석  |
| II. 언어학의 학문체계를 기초로 한 KDC 언어학 연구대상부문의 새로운 전개 | IV. KDC 언어류 관련부문에 대한 개선방안 |
|   | V. 결론 및 제언                |

### 초 록

이 연구에서는 KDC 제4판의 언어류 관련부문에 있어서 제반 문제점을 지적한 다음, 그 개선책을 제시함으로써 KDC의 제5판 개정에 일조하는데 그 의의를 두고 있는데,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언어 공통구분(보조표)을 상세하게 전개하였는데, 언어류(700) 내에 「내부 보조표」로 위치시켜도 무방할 것이다. 둘째, 불합리하고 비논리적인 기호계층구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였다. 셋째, 주기설정 미흡으로 분류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하므로 꼭 필요한 다양한 분류주기를 설정하였다. 넷째, 불합리한 언어구분 전개를 수정·보완하였는데 국어구분표(보조표) 및 문학류(800)에도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주제어: KDC-언어류, 언어학, KDC-언어공통구분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aims to provide possible suggestions for the improvement of the Korean Decimal Classification System in 21st century through the analysis of language field as the subject of study. As a result of this study, some problems (for example, irrational classification number system, very simplicity of 'Subdivisions of Individual languages and languages families', improper languages development, insufficiency of note etc.) were found out. This study can be useful for the future revision of KDC4 because a revolutionary improvement were provided.

Key Words: KDC-Language, Linguistics, KDC-Table for language

\* 광주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jahookim@hosim.kwangju.ac.kr)

• 접수일 : 2003. 11. 19    • 최초심사일 : 2003. 11. 26    • 최종심사일 : 2003. 12. 5

## I. 서 론

국내 유일의 표준분류표인 KDC(한국십진분류법)의 새로운 版(4판)이 문헌정보학계와 도서관 현장의 지대한 관심과 기대 속에서 16년 만인 1996년에 출판되었으나 전반적으로 많은 문제점들이 노출되어서 필자는 KDC 4판의 문제점을 개략적으로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한 바 있으며,<sup>1)</sup> 그 후 현재까지 KDC 4판을 통한 「분류·목록연습」강좌를 맡아 오고 있는데, 강의 중간 중간에 KDC 4판의 결함부분을 지적하고 개선점을 제시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발생하여 학생들이 혼란스러워 할 지경이다.

KDC 4판이 출간된 이 후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연구논문들이 상당 수 발표된 바 있는데 그 가운데는 주제전개 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점을 제시하는 것들<sup>2)</sup>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그 밖에 분류시스템 관점에서 연구된 것으로는 도태현<sup>3)</sup>을 비롯하여 필자가 1997년에 발표한 것과 유사하게 KDC 4판 전반에 걸쳐 문제점을 제시한 정연경<sup>4)</sup>과 DDC 우선순위표 연구<sup>5)</sup>를 기초로 KDC 우선순위표 채택방안을 제시한 오동근의 논문<sup>6)</sup>이 있는데 주목할만한 연구라고 판단된다. 또한 다른 시스템과 비교·분석한 연구물들<sup>7)</sup>도 몇 있는데 향후 이러한 연구물들이 보다 많이 발표되어 KDC뿐 아니라 기존의 전통적인 문헌분류법들이 발전하는데 크게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 1) 김자후, “KDC(한국십진 분류표) 4판에 대한 제언,” 도서관학논집, 제27집(1997, 겨울호), pp.369-390.
- 2) ① 강인석, “토목공학분야 문헌정보분류법의 류, 강, 체계 비교분석,” 한국정보관리학회지, 제14권, 제2호(1997), pp.105-122.  
② 김선영, “KDC와 CC의 토목공학분야 비교 분석,” 문헌정보학논집, 제6호(1999), pp.371-412.  
③ 문지현, 한국십진분류법 농학분야의 분류체계에 관한 연구(석사학위논문, 전남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2000).  
④ 박옥화, “한국십진분류법 제4판 철학류의 분석,”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31권, 제3호(1997), pp.7-21.  
⑤ 배영활, 오동근, “KDC 제4판과 DDC 제21판의 특수사회학 관련 주제에 관한 비교분석,” 정보관리학회지, 제19권, 제4호(2002), pp.53-76.  
⑥ 한중희, 십진분류표의 불교 분야 비교분석 및 KDC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1998).  
⑦ 도태현, KDC 법학 분야의 체계와 문제점,” 동의논집 : 인문사회과학, 제28권, 제1집(1998, 2), pp.589-610.
- 3) 도태현, “열거식 계층분류체계에 분석합성식기법의 도입에 관한 연구(KDC를 중심으로),” 도서관학논집, 제29권(1998, 겨울), pp.241-270.
- 4) 정연경, “DDC 21과 KDC 4의 비교 분석 및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34권, 제1호(2000), pp.181-205.
- 5) 배영활, “오동근, DDC21의우선순위표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36권, 제1호(2002), pp.187-209.
- 6) 배영활, 오동근, “한국십진분류법의 우선순위표 설정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33권, 제2호(2002, 겨울), pp.167-186.
- 7) ① 박순연, KDC를 적용한 한글탐색엔진의 사회과학 분야 디렉토리 설계(석사학위논문, 충남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2000).  
② 박은석, 웹문서 분류체계의 KDC체계의 비교 분석(석사학위논문, 전주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1999).

필자는 본 연구에서 KDC 4판의 제반 문제점들을 부문별로, 비교적 문제가 많은 부문을 우선으로 하여 순차적으로 고찰한 다음 그 개선책을 마련해 나감으로써 장차 KDC 개정 시에 기초자료를 제공코자 한다. 이 연구는 그 일환으로서 언어류 관련 부문을 1차 대상으로 삼게 되었다. 구체적으로는 언어류(700)의 총류 부분(701-709), 언어학의 연구방법 부문(701.01-701.09), 언어학 주 전개부분 (701.1-701.9),<sup>8)</sup> 「언어공통구분(보조표, 助記表)」, 그리고 「개별언어 전개부분(710-799)」을 대상으로 하여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한 다음, 기호 階位 상의 비논리적인 부분을 획기적으로 재조정하고 동시에 적절하고 구체적인 분류주기를 마련한 것 등이 본 논문의 중점 연구사항이라고 할 수 있겠다. 본 연구의 개관성을 입증하기 위한 기초자료로서 언어학의 학문체계를 개관하였으며, 또한 NDC(일본십진분류법)<sup>9)</sup>를 주요 비교대상으로 삼았다. 언어공통구분(보조표)의 경우 종교공통구분, 문학형식구분, KDC의 한국지리구분 및 한국시대구분 등과 함께 특정 주제(주류)에 국한되어 사용되므로 해당 주류(주제)의 내부표<sup>10)</sup>로 채택하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다. KDC는 기본적으로 내부보조표를 채택하지 아니하였지만 이번 기회에 KDC에도 대부분의 기존 문헌분류표에서 채용하고 있는 내부보조표 채택을 전제로 하면서 분류절차 상의 불합리한 부분을 수정·보완코자 한다.

문헌분류표(법)는 단순한 표(table)가 아니라 분류기호를 유효적절하게 부여하기 위한 체계(System), 장치(Device), 도구(Tool)이다. 먼저 주제(개념)의 합리적인 전개(학문체계나 해당 주제의 지식체계)가 최우선 과제지만 그것에 상응하는 합당한 기호체계를 구비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 아니할 수 없다. 그리고 방대한 문헌들을 기호상으로 개별화시키기 위해서는 상세한 분류표가 되어야 하며, 그 일환으로 보조구분(공통보조표, 내부표, 助記表 등)을 비롯한 각종 장치를 수단으로 하여 다양한 기호조합방식을 채택하게 된다. DDC의 경우 열거식 분류법의 범주에 포함되나 LCC, KDC, NDC 등 다른 열거식 분류법에 비해 상대적으로 조합방식이 많을 뿐 아니라 그에 따른 주기사항도 많기 때문에 일견 복잡해 보이기는 하지만 이는 유용한 분류방식으로서 불가피한 조치로 보아지며 분류시스템 측면에서 볼 때 안내(지시)에 따라 순서적(단계적)으로 분류절차를 밟아 나가면 거의 유일한 기호에 이르게 된다. 이런 관점에서 KDC는 분류도구로서의 시스템 측면을 고려한 흔적이 거의 보이지 않는 단순한 표에 불과하므로 「분류법」이라는 명칭이 어울리지 않을 정도다.

분류표(본표)에 지식(개념) 전체의 각 주제가 일일이 전부 열거된, 즉 조합방식이 일체

8) 성격상 이 부분은 언어공통구분(보조표 : 조기표)과 유사하나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으며, 언어학 연구대상 영역이 된다.  
9) KDC 언어류는 거의 전적으로 NDC를 기초로 한 것으로 나타났다.  
10) 내부표에 대한 분류표들의 명칭을 보면, DDC : 부가표(add table), UDC : 고유보조표, NDC : 고유보조표, LCC : 내부표(internal table)가 된다. 필자는 향후 기존 분류표들의 내부표를 분석·고찰하여 KDC에 채용하는 방안을 연구계획하고 있다.

없는 순수 열거식분류표<sup>11)</sup>만 만들 수 있다면 분류작업도 거의 색인에만 의존할 수 있어 아주 용이할 뿐 아니라 일반이용자들도 색인을 통하여 분류기호를 쉽게 확인할 수 있어서 분류기호를 검색어로 하는 정보탐색이 어렵지 않을 것이므로 여러 모로 이상적일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분류표를 만든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sup>12)</sup> 현실적으로는 열거식 분류표의 편리함과 실용성을 가능한 유지하면서 부분적으로는 조합식 체계에서 적용되는 조합원리를 어느 정도까지는 지속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조합식(분석·합성식) 분류체계는 분류를 할 때 더 많은 사고를 해야 하는 점이 있기 때문에<sup>13)</sup> 실용성을 유지하는 선에서 조합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DDC, KDC, NDC 등 십진분류법에는 10개의 주류가 있으며 이 중 일반적인 주제인 철학, 종교, 사회과학, 순수과학, 예술은 기본적으로 주제를 논리적·체계적으로 세분·전개한 주류들이지만 총류(가장 대표적), 언어류, 문학류, 역사류는 각각 독특한 전개방식을 가진, 즉 패시식 분류법의 성격이 강한 주류(예 : 언어류 : 각 언어 → 언어공통구분)이므로 일반 주제취급 주류처럼 방대하지도 않을 뿐더러 학문과 지식이 발전·변화하는데 부응하여 분류표가 개정되더라도 거의 변하지 않는 주류이므로 특정 분류표 이해 시 언어류의 본표 체계를 사전에 숙지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즉 색인에 의존하지 않고 분류할 수 있도록 사전에 그 구성체계를 이해할 필요가 있는 주류들이다. 특히 언어류에만 국한해서 적용되는 언어공통구분(언어학 연구대상 영역)의 경우 국가나 도서관 사정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기 때문에 기존 분류표의 해당 부분들을 충분히 참조하여 표준적인 것을 마련하여야 할 뿐 아니라 언어류에만 적용되는 보조표이므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향후 KDC에도 내부보조표 장치를 채택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이를 언어류의 「내부보조표」로 전환하는 획기적인 발상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요컨대 본 논문은 KDC 개정 시에 대비하여 언어류 부분(관련 언어구분, 언어공통구분 등 보조표들을 포함)의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 연구결과로서 기존의 DDC, NDC 등 분류표의 해당 부분들을 철저하게 분석하여 반영하게 되며, 또한 필요한 곳에는 분류지침이라고 할 수 있는 주기사항을 적제 적소에 구체적으로 설정하여 분류도구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하도록 한다.

11) 이것은 글자 그대로 表(table)라고 할 수 있겠다.

12) 왜냐하면 부피가 기존 분류표의 수백 수천 배 이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13) Brian Buchanan, 文獻分類理論, 鄭駉模, 吳東根 共譯(서울 : 구미무역출판부, 1989), p.1.

## II. 언어학의 학문체계를 기초로 한 KDC 언어학 연구대상부문의 새로운 전개

현재 국내에는 서울대학교, 충남대학교, 고신대학교 등 3개 대학에 「언어학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언어학과는 특정 언어에 국한해서 적용되는 언어공통구분(보조표 : 예-영문법)의 모든 영역을 포함하여 언어 전반<sup>14)</sup>에 걸쳐서 연구하는 학문분야이므로 언어학의 학문체계를 규명한 다음 이를 토대로, 기존 분류표의 언어학 연구대상부문(예 : KDC-「701.01-701.09」, NDC-「801.01-801.09」 등)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KDC에 적합한 합리적인 전개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언어학의 학문체계를 규명하기 위한 기초자료로서 「야후 백과사전」<sup>15)</sup>과 「브리타니카 백과사전」<sup>16)</sup>을 주로 참조하였다.

영국에서는 'philology(문헌언어학)'라고도 하는 언어학(言語學, linguistics)은 언어라는 복잡한 조직체(구조)를 여러 각도(관점)에서 접근하여 과학적으로 분석, 고찰하여 언어의 특성을 밝히는 학문을 일컫는다. 언어학의 연구방법 영역<sup>17)</sup>은 크게 언어음성을 대상으로 하는 음성학과 음운론, 형태소의 기능을 연구하는 형태론, 형태소들에 의한 문장구성을 연구하는 통사론(구문론, 통어론), 단어 또는 문장의 의미를 대상으로 하는 의미론, 그리고 어휘의 체계를 대상으로 하는 어휘론, 방언의 제 양상을 언어학적인 관점에서 연구하는 방언학 등이 있으며, 또 그 연구방법에 따라, 역사언어학 비교언어학 대조언어학 일반언어학 등이 있다. 현대의 언어학의 발달은 자연적으로 인접과학과의 교류를 필수적인 것으로 만들었으며, 이에 따라 사회언어학 심리언어학 인류언어학 언어철학 언어미학 수리언어학 등의 분야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언어학 연구대상 분야〉

**음성학(音聲學, phonetics)** : 인간의 의사전달수단인 언어를 이루는 언어음성에 대하여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언어학 연구방법의 하나로 그 연구 분야로는 생리음성학(生理音聲學, physiological phonetics) 또는 조음음성학(調音音聲學, articulatory phonetics), 음향음성학(acoustic phonetics) 또는 실험음성학(experimental phonetics), 그리고 청취음성학(auditory phonetics)이 있으며, 연구범위에 따라 개별음성학(個別音聲學), 일반음성학, 응용언어학으로 구분된다.

**음운론(音韻論, phonology)** : 언어전달의 체계 내에서 이루어지는 기능이란 관점에서

14) 최소한 2개 이상의 語族이나 언어를 대상으로 한다.

15) 야후백과사전 홈페이지, <<http://kr.encycl.yahoo.com/>> [인용 2003. 8. 18].

16) 브리타니카백과사전 홈페이지, <<http://www.britannica.co.kr/>> [인용 2003. 8. 18].

17) 언어학의 연구방법 영역들은 개별 언어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요소들로서 언어공통구분(보조표)의 구성요소가 된다.

언어음성을 연구하는 학문으로 음소론(音素論)과 운소론(韻素論)으로 구분된다.

**의미론(意味論, semantics)** : 언어의 의미에 관하여, 그 기원 변화 발전 등을 연구하는 언어학의 한 분야로 의미론에는 언어학의 한 분야로서의 의미론 외에 기호론(記號論)의 한 분야로서의 의미론과 그 밖의 의미론이 있다.

**문자론(文字論, graphonomy)** : 인류가 개발·발전시킨 문자의 생성·전파 및 문자의 성질과 기능에 관해서 연구하는 언어학 연구대상의 한 분야로서 문자론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하나는 문자의 발명단계에서부터 여러 문자의 발전단계를 거쳐 현대에 이르는 과정을 연구하는 역사적 문자론이고, 다른 하나는 문자의 언어 자체와의 관련성, 즉 문자가 언어에 대해서 가지는 기능 또는 법칙을 연구하는 언어학적 문자론이다

**통사론(統辭論, syntax)** : 단어가 결합하여 형성되는 구·절·문장의 구조나 기능을 연구하는 문법의 한 분야로 구문론·문장론·통어론·월갈이라고도 한다. 전통적으로 문법은 형태론과 통사론으로 양분되어 있다.

**형태론(morphology)** : 음운론에서 정의된 음이 특정한 방법으로 결합 또는 배열되어서 이루어진 형태소(形態素, morpheme)의 여러 현상을 연구하는 언어학 연구대상의 한 분야

**어휘론(語彙論)** : 어휘를 연구대상으로 하는 언어학 연구대상의 한 분야로 단어의 집합체를 어휘라 일컬으므로 결국 어휘론은 단어에 대해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분야라고 할 수 있다.

**방언학(方言學, dialectology)** : 방언의 제 양상을 언어학적인 관점에서 연구하는 학문으로 주된 연구과제는 각각 하나의 방언을 전체의 체계로 보아, 그 방언을 음운체계·문법체계·어휘체계 등 전체구조를 파악하고, 각각의 기술된 체계를 비교·고찰함으로써, 언어 전체의 분화양상을 연구하는 것이다.

#### 〈언어학 연구방법 분야〉

**언어철학(言語哲學, philosophy of language)** : 언어에 관한 개개의 법칙을 확립적으로 설명하는 철학의 한 분야로 넓게는 언어적 철학·언어의 철학·언어학의 철학을 모두 포함하고, 좁게는 언어의 철학을 가리킨다.

**심리언어학(心理言語學, psycholinguistics)** : 언어의 구조와 기능에 관한 언어이론을 심리학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으로 언어 현상의 심리적 과정을 연구하는 언어심리학과는 구별된다.

**언어심리학(言語心理學, psychology of language)** : 일반적으로는 언어가 지닌 심리학적 측면에 대한 연구, 또는 언어의 심리학적 연구를 행하는 학문분야로 좁은 의미로는 언어를 행동의 한 양태(樣態)로 간주하고 조건설정을 중심으로 한 오늘날의 학습이론 테두리 안에서 심리학적 방법을 동원하여 언어행동의 구조, 언어의 습득, 언어의 의미, 언어와 지각(知覺)의 관계, 개인의 언어생활 등을 연구하는 학문분야이다.

**사회언어학(社會言語學, sociolinguistics)** : 언어를 사회적 요인과 관련지어 연구하는 분야이다.

**언어사회학**(言語社會學, linguistic sociology) : 언어현상을 인간의 사회적 활동과 관련시켜 연구하는 학문 분야이다.

**언어인류학**(言語人類學, linguistic anthropology) : 언어와 인류학(문화인류학)과의 경계(境界) 영역, 또는 접점(接點)을 이루는 연구분야.

**언어유형학**(言語類型學, linguistic typology) : 언어가 가진 형태나 구조에 의하여 유사성과 차이점을 기준으로 몇몇 유형을 설정하고, 그들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를 통하여 언어의 일반법칙을 탐구하는 언어학의 한 분야이다. 언어의 유형적 분류로는 고립어(孤立語 : isolating language), 교착어(膠着語 : agglutinative language), 굴절어(屈折語 : inflectional language), 그리고 포함어(抱合語 : incorporating language) 등 4가지 유형이 있다.

**메타언어학**(metalinguistics) : 고차 언어학 또는 상위 언어학이라고 한다. 또 매크로언어학(macrolinguistics)의 하위구분으로도 보는데, 주로 언어와 그것을 사용하는 민족의 문화나 세계관과의 관계를 다룬다.

**마이크로언어학**(microlinguistics) : 미국의 구조주의 언어학의 입장에서 G.트래거가 언어학의 중심부분에 붙인 용어로 매크로언어학(macrolinguistics)의 일부를 이룬다.

**언어공학**(言語工學, language engineering) : 언어집단 내의 커뮤니케이션을 원활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 분야로 언어사회학과는 표리일체(表裏一體)의 관계에 있다.

**수리언어학**(數理言語學, mathematical linguistics) : 수학의 방법론과 이론을 응용한 언어 연구의 한 분야로서 최근에 형식의미론(形式意味論)이라는 이름으로 급격히 발전되고 있다.

**전산언어학**(電算言語學, computational linguistics) : 언어학과 전산학이 밀접한 관련을 맺으면서 확립되기 시작한 학제적(interdisciplinary) 학문으로 인간이 자연언어를 어떻게 처리하는가를 연구하는 심리언어학(psycholinguistics)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기계번역시스템 등이 있으며 인공지능과도 밀접하며 언어공학과도 연상되는 표현이다.

**비교언어학**(比較言語學, comparative linguistics) : 같은 계통에 딸린 두 가지 이상의 언어 구조를 비교하여 서로의 계통적 관계나 변천 발달 등을 연구하는 언어학의 한 분야로, 역사비교언어학이라고도 하는데 언어유형론이나 대조언어학(對照言語學)과는 다르다.

**대조언어학**(對照言語學, contrastive linguistics) : 두 개 또는 그 이상의 언어를 대조하여 그들 사이의 차이점 공통점 등을 연구하는 언어학 연구방법으로 비교언어학(comparative linguistics)과는 목적과 방법이 전혀 다르다.

**역사언어학**(歷史言語學, historical linguistics) : 언어의 어원론적 연구를 통하여 음운, 문법, 의미의 변화과정을 연구하고 언어간의 통시적 비교를 통하여 발생론적 상관관계를 밝히는 언어학의 한 분야로 일정한 한 시기의 언어만을 연구하는 공시언어학(共時言語學 : 구조언어학이라고도 함)과 비교하여 통시언어학(通時言語學)이라고도 한다.

**사적 언어학**(史的 言語學, historical linguistics) : 시간적으로 하나의 상태에서 다음 상태로 옮겨가는 언어의 양상을 연구하는 언어학으로 공시언어학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쓸

때는 보통 통시언어학(diachronic linguistics)이라 한다.

**공시언어학(共時言語學, synchronic linguistics)** : 한 시점의 언어를 연구하는 학문으로 연구 시점은 현재일 수도 있고 과거의 특정 시점일 수도 있으며 공시 분석은 라틴어같은 사어(死語)를 대상으로 할 수도 있다. 공시언어학은 일정 시기에 걸친 언어를 연구하는 통시언어학(通時言語學 : 또는 역사언어학)과 대비된다.

**구조언어학(構造言語學, structural linguistics)** : 언어의 구성 요소간의 관계에 초점을 두고 그 구조를 기술, 해명하려는 학문이며 근대 언어학의 입장 및 그 입장에서 이루어진 연구 결과로서 기술언어학(記述言語學)이라고도 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언어학 연구방법 영역과 KDC 및 NDC에 전개된 사항을 비교 검토하여 전체 영역을 모두 다 수용하는 합리적인 전개표를 제시하면 <표 1>과 같다. 다만 KDC의 701.5의 일부(고립어, 교착어, 굴절어) 및 NDC의 801.5의 일부(언어유형론 : 고립어, 교착어, 굴절어, 포함어)는 언어학 연구방법분야이지 특정 언어(예 : 영어)에서 취급되는 분야가 아니므로 보조표 항목에서는 제외시킨 대신 여기로 移值시켰다.

<표 1> 언어학 연구방법 영역과 대비한 KDC를 위한 새로운 전개표

언어학 연구방법 영역체계	K D C		N D C		KDC를 위한 새로운 전개	
	분류 기호	표목	분류 기호	표목	분류 기호	표 목
언어철학, 언어미학	701.01	언어철학, 언어미학	801.01	언어철학, 언어미학	1	언어철학, 언어미학
			.019	언어통계학, 언어수계학		
수리언어학, 전산언어학	.02	언어공학	.02	언어학사	2	언어심리학, 심리언어학
언어심리학, 심리언어학	.03	언어사회학	.03	언어사회학, 사회언어학	3	언어사회학, 사회언어학
사회언어학, 언어사회학	.04	언어심리학	.04	언어심리학	4	언어인류학
언어인류학					5	언어유형론 : 고립어, 교착어, 굴절어, 포함어
언어형태학 : 고립어, 교착어, 굴절어, 포함어					6	매크로언어학, 마이크로언어학, 메타언어학
매크로언어학, 마이크로언어학, 메타언어학	.07	계량언어학, 통계언어학, 수리언어학			7	언어공학 : 수리언어학, 계량언어학, 통계언어학, 전산언어학
비교언어학, 대조언어학					8	비교언어학, 대조언어학
역사언어학, 공시언어학	.09	비교언어학	.09	비교언어학		언어학사, 역사언어학(사적언어학, 통시언어학), 공시언어학(구조언어 학, 기술언어학



### Ⅲ. NDC 언어류 관련부문에 대한 분석

KDC에 앞서 NDC를 먼저 검토하는 이유는 NDC가 KDC보다 비교적 문제점이 적을 뿐 아니라 KDC의 언어류(700)는 거의 NDC(800)를 따른 것으로 나타나서 NDC를 먼저 바로 잡고 그것을 기반으로 하여 단계적으로 KDC를 분석하는 것이 합리적인 연구방법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NDC의 언어공통구분(보조표)은 다른 보조표에 비해 간략하게 전개해 놓고 본표(언어류 : 800)에서 언어공통구분의 세부항목들이 특정 언어(일본어, 중국어, 영어)에만 집중해서 상세하게 전개되어 있을 뿐 그 외 다른 언어들에는 구체적으로 전개되지 않았는데, 심지어 독일어, 프랑스어와 같은 비중 있는 언어조차도 「언어공통구분」을 적용하라'는 간단한 指示註만 나와 있어서 「독일어 약어사전」과 같은 구체적인 분류는 불가능하다.<sup>18)</sup> 따라서 언어공통구분(보조표)을 구체화하되 이 보조표는 언어류에만 한정되어 사용되므로 본표 내의 언어류 쪽으로 옮겨서 내부보조표로 사용되어도 무방할 것이다. 왜냐하면 NDC에는 다음과 같은 내부보조표(고유보조표)가 있기 때문이다.<sup>19)</sup>

- 1) 神道各教派(178)の共通細區分表.
- 2) 佛教各教派(188)の共通細區分表.
- 3) キリスト各教派(198)の共通細區分表.
- 4) 各國・各地域の地理, 地誌, 紀行(290/297)の共通細區分表.
- 5) 技術・工學(500/580) 經濟的,經營的觀點の共通細區分表.
- 6) 寫眞を除く各美術(700/730,750/759)の圖集に關する共通細區分表.

언어구분(보조표)은 본표 내의 개별 언어부분(810-899)과 마찬가지로 자국 우위(Local emphasis)를 적용하여 대체로 무난하게 전개되어 있어서 특별히 지적할 만한 것이 없다.

언어학 연구방법분야(801.01(언어철학, 언어미학)-801.09(비교 언어학))는 이미 제2장에서 충분히 고찰하여 KDC를 위한 새로운 전개를 확정하였으므로 여기서 다시 논의하지 않기로 한다.

언어공통구분(보조표)의 항목 결정에 판단기준이 되는 언어학 연구대상부분(801.1-801.9)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하면 다음과 같다.

801.3(사전편찬법, 多言語사전)의 경우 多言語사전(3개 이상 언어로 구성된 사전)은 언

18) 약어사전, 속어사전, 고어사전 등 각종 특정 주제사전의 경우 일본어, 중국어, 영어에만 아주 복잡한 주기로 지시되어 있을 뿐 독일어를 비롯한 그 외 언어에는 구체적인 분류지침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분류가 불가능하다.

19) 日本圖書館協會, 日本十進分類法;本表編, 新訂9版(東京: 日本圖書館協會, 1995), pp. xxvi.

어학의 연구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KDC와 같이 언어류(800)의 총류 부분 중 사전(803)<sup>20</sup>으로 옮기는 것이 합리적이다. 801.6(문장론, 문체론, 修辭學)은 「修辭學 차원의 각 문학 장르별 작법(예 : 소설작법)」이 아니고 ‘각 언어별 기초작문법(예: 영작문법)을 취급한다’는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며, 801.7(번역법, 해석법, 회화법)은 주기사항에 ‘특정 언어번역에 관한 것도 여기에 분류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해당 언어 쪽에서 분류해야 할 것이다. 801.1-801.7」은 DDC처럼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sup>21)</sup> 표준어를 전제로 하였으므로 801.8(방언학, 언어지리학)은 비표준어를 대상으로 삼는 분류항목으로 간주하여 비표준어의 연구대상인 古語, 卑語, 俗語, 隱語, 新語, 流行語(네티즌들의 인터넷 언어 등)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동시에 「지리구분」지시가 필요한 항목이다. 801.9(언어, 문자가 아닌 전달)은 언어학 연구대상 영역에는 포함되지만<sup>22)</sup> 특정 언어와 무관하므로<sup>23)</sup> 언어공통구분(보조표)에서는 제외시키기로 하며 KDC도 마찬가지로 대체로 兩者擇一이 가능한 항목으로 체스처, 바디랭귀지, 표정 등을 추가하는 것이 좋겠는데 DDC에서는 Sign language(419)로 나와 있다.

언어류(800)의 총류 항목 중에서 809(언어생활, speaking, shorthand, typewriting)는 DDC의 경우 언어학 연구대상 영역인 응용언어학(418)과 언어공통구분(-8)의 일부로 나와 있는데, 언어공통구분(보조표) 및 언어학 연구대상부분(801.1-801.9)에서 801.6 항목의 일부로 옮길 계획이다. 801.9 항목, 즉 보조표의 마지막 항목은 비워두기로 하였는데 「859 프로방스어」에서 보듯이 본표 내에 이미 다른 개념으로 기호가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보조표 항목들은 본표 언어류에서는 각 언어(대체로 綱目에 배정)의 要目(次하위 기호)으로 나타나게 된다. KDC에는 NDC의 언어생활(809) 및 DDC의 응용언어학(418) 관련 항목이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한편 NDC의 언어류(800)는 기호체계가 아주 불합리하게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것은 KDC에서도 마찬가지로 지적되는 대목이다. 언어류(800)의 총류(802-808) 부분은 대체로 어느 특정 언어에 국한되지 않고 단지 언어학(801, linguistics)의 표준구분에 사용되는 항목들로서 기호 階位로 보아 주객이 전도되어 있다.<sup>24)</sup> 따라서 801(언어학, linguistics) 항목의 전개 사항을 「801-809」에 옮겨 배치한다.<sup>25)</sup> 그렇게 되면 특정 언어에 국

20) 나중에 기호 조정되면 형식구분(KDC의 표준구분)과의 조기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800.033이 된다.

21) DDC에는 각 항목마다 「...of the standard form of the language」라고 「표준어」가 명시되어 있다.

22) 본표 내의 언어학 연구대상 부분(801.01-09)은 언어공통구분(보조표)과는 무관하므로 09(언어, 문자와 무관한 전달) 항목은 그대로 살린다.

23) 언어학과에서는 공부하지만 특정 언어, 이를테면 영어학과에서는 취급하지 않는다.

24) KDC도 마찬가지로 모든 주류의 총류 부분에는 대체로 해당 주류의 형식구분을 위한 항목들이 전개되는데 언어류(800) 전체에 적용되는 형식구분 항목들(801-809)은 사실상 필요 없다고 생각된다. 모든 언어 또는 3개 이상 언어로 씌어진 연속간행물이 존재할 리가 만무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 전개사항은 언어학(Linguistics)의 총류 부분으로 활용하는 것이 옳을 것으로 판단된다.

25) 생각대로라면 DDC처럼 언어학을 강목(810)에 배치하고 싶지만 그렇게 되면 중요 언어항목 전체의 기호가 바뀌게 되므로 어쩔 수 없었다.

한되지 않는 언어학 연구방법 분야(801.01 언어철학 -09 비교언어학)에는 「800.1- 800.9」를 배정하고, 기존의 총류, 즉 표준구분항목(802-808)에는 「800.02-800.08」을 배정해야 논리적인 階位체계가 된다.

지금까지 논의된 사항을 NDC에 나와 있는 표목만을 대상으로 재조정하면 다음과 같다.

<800.02-800.08>

- 800.02 언어사, 사정, 언어정책<sup>26)</sup>  
언어학사→800.2
- 800.03 참고도서<sup>27)</sup>  
多언어사전→800.033
- 800.04 논문집, 평론집, 강연집
- 800.05 逐次간행물<sup>28)</sup>
- 800.06 단체 : 학회, 협회, 회의
- 800.07 연구법, 지도법, 언어교육
- 800.08 총서, 전집, 선집

<800.01-800.09><sup>29)</sup>

- 801 음성학, 음운론, 문자론
- 802 어원학, 의미론
- 802 사전편찬법<sup>30)</sup>
- 804 어휘론
- 805 문법론<sup>31)</sup>

26) NDC는 역사류를 200에 배치하였으므로 그것과 조기성을 유지하기 위해 「언어사」는 802에 배치하고 다른 분류표의 표준구분 중 02. 03에 해당하는 내용들은 03(실제 기호는 803)에 합쳤다. NDC에는 여기에 「지리 구분」지시가 있는데 개별 언어 쪽에서 취급하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여기서는 삭제한다. 가나문자의 역사는 누구나 일본어(810) 쪽에서 찾고자할 것이다. 그리고 분류편의를 위해 「언어학사 → 800.2」의 주기설정이 필요하다.

27) 이 항목 외의 다른 항목들(800.02-.08)은 형식구분(KDC의 표준구분) 전개항목과 일치하여 여기에 있거나 없거나 분류결과는 동일하므로 삭제해도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多언어사전」은 여기서 분류하되 「형식구분(KDC의 표준구분)」기호와 조기성을 감안하면 800.033이 된다.

28) 일본에서는 연속 간행물을 逐次간행물이라고 표현한다.

29) 언어학 연구방법에 해당하는 항목들(801.01-801.09)은 앞서 2장에서 소개한 언어학 체계 부분에서 구체적인 항목들이 정해졌으므로 기호관계만 조정(800.1-800.9)하면 될 것이다. 다만 「800.2 언어학사」항목 아래에 「언어사 → 800.02」의 주기를 설정한다.

30) 여기는 사전편찬에 관한 이론문헌을 분류하는 곳이므로 3개 이상의 多언어사전은 800.03(참고도서) 쪽으로 이동·배치한다.

31) 여기에 포함되었던 언어유형론(고립어, 교착어, 굴절어, 포함어 등)은 언어 연구방법 분야이므로 그쪽으로 移置시켰다.

- 806 문장작법, 언어생활<sup>32)</sup>  
 여기서는 영작문법 등 특정 언어의 기본적인 문장작법을 분류하고 수사학 수준에 해당하는 각 문학 장르별 작법(예 : 소설작법) 및 그것에 수반되는 문장론(은유법, 직유법 등)과 문체론(화려체, 건조체 등)은 900(문학류)에서 분류한다. 문장론, 문체론, 수사학 → : 901
- 807 번역법, 해석법, 회화법<sup>33)</sup>
- 808 方言學, 언어지리학, 古語, 卑語, 俗語, 隱語, 階級語, 新語, 流行語(네티즌들의 인터넷 언어 등)<sup>34)</sup>  
 \*지리구분
- 809 언어, 문자와 무관한 전달<sup>35)</sup>

<810/890 각 언어>

본 연구에서 개선안으로 제시하는 KDC 언어류(700)의 새로운 분류체계는 개별언어들(810-890)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언어관련 보조표를 마련하는 것이 주된 연구이므로 앞서 소개한 언어학의 전개 항목(801-808)을 골간으로 하고 그 곳에 포함될 세부항목들은 개별언어영역(810/890)의 전개사항<sup>36)</sup>을 살펴서 모든 언어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항목을 골라내어 채용코자 한다. 그렇게 되면 새로 마련되는 보조표는 주로 「840/890」에 적용될 것이다. 왜냐하면 일본어, 중국어, 영어를 제외한 다른 언어항목에는 아무런 세부항목 전개가 없으므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독일어 약어사전」조차도 분류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이다.

보조표 마련을 위하여 「810/830」의 세부 전개항목을 살펴보고자 하는데 개선해야 할 부분이 발견되면 수정해가면서 검토해 나가고자 한다.

먼저 「810-890」 전체에 적용되는 주기사항 즉, <810/890 각 언어><sup>37)</sup> 아래에 설정된 주기는 대체로 무난하다. KDC에는 이러한 주기가 마련되지 않아 많은 부분에서 분류가 불가능한 형편이다.

일반적으로 분류를 하려면 먼저 색인을 보게 되지만 대체로 계속해서 본표 내의 보다

32) 「언어생활」 관련 세부항목은 지면관계상 생략한다. 이중 일부만 보조표 항목으로 채택하기로 한다.  
 33) 「특정언어 번역에 관한 것도 여기서 분류한다」는 주기사항을 삭제한다, 즉 개별 언어항목(810-899) 쪽에서 취급하도록 한다. 말하자면 807 항목이 보조표 항목으로도 설정되므로 본표기호(810-899)에 조합하면 된다는 의미이다.  
 34) 여기서는 비표준어를 분류하며 지리구분 지시주 설정이 필요하다.  
 35)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보조표에서는 이 항목을 없앤다.  
 36) 일본어(810), 중국어(820), 영어(830)만 구체적으로 전개되어 있다.  
 37) DDC에서는 이와 같은 유형의 분류항목, 즉 어느 일정한 주제범위를 분류항목으로 설정해 놓은 것을 Centered entry(중앙 기입 혹은 중앙저록)'라고 한다. 이 때 대체로 세부적인 주기를 설정해 놓고 있는데 철저하게 읽어보아야 한다.

상위 주제를 살펴보게 되며 그 곳에는 일반적으로 구체적인 분류적용지침이 주기되어 있는데 DDC 경우는 무려 여러 페이지에 달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주기는 구체적인 분류표 사용법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안내를 가지고 반드시 전부 읽어야 할 내용이다. KDC는 이러한 주기 설정에 너무나 소홀한 나머지 兩者擇一의 경우도 어느 한 쪽 항목에서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는 형편이다. DDC는 그러한 안내가 너무나 철저하고 구체적이어서 지시대로만 따르면 어떠한 문제도 발생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420/490」항목 아래 주기내용을 보면 그 후 전개되는 해당 언어항목이 나타날 때마다 「Add to base number as instructed under 420-490」<sup>38)</sup>이라고 안내되어 있어서 비단 시간은 다소 소요될지 모르나 지시대로 따르면 분류기호 배정이 아주 명백해진다. 즉 DDC는 체계적·논리적으로 아주 정교한 분류시스템이다. DDC에는 中央著錄(centered entry)과 함께 DDC 21에서 표를 간소화해 주어 전반적인 구성을 단순하게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본표 하단에 나와 있는 「\*, †, ‡」와 같은 기호이다. 이와 같은 기호를 부가함으로써 똑같은 지시사항을 반복할 필요 없이 간략하게 표를 구성할 수 있다.<sup>39)</sup>

지금부터는 「810/830」의 세부 전개 항목을 토대로 보조표 항목을 설정해 보기로 한다. 즉, 여기에 전개된 세부 항목들 가운데 개별언어에 공통적으로 채용될만한 항목들을 골라 낸 다음 앞서 조정해 놓은 언어학(801/809) 전개항목과 적절히 통합시켜서 더욱 구체적으로 전개하여 이를 보조표 항목으로 채택한다는 의미이다. 보조표의 기본적인 기호체계는 「1-9」로 한다. 먼저 810(일본어) 전개 항목 중 개별언어에 적용될 공통항목들을 재조정하면서 적출해 보면 다음과 같다. 다만 「810/830」의 총류부분(예 : 810.1-810.9)은 이론, 역사 등 표준구분(보조표) 과 조기성을 가지는 항목들로서 언어공통보조표와는 무관하므로 제외시켰다.

- 811 음성, 음운, 문자
- 811.1 음성, 발음, 음운
- 811.13 액센트, 인토네이션
- 811.59 외국어, 외래어의 특정언어표기법
- 811.7 구두점
- 811.8 특정 언어의 로마자 표기법
- 812 어원, 의미론
- 813 사전

일반 언어사전, 즉 기본 어휘사전을 분류한다. 기타 주제사전은 각 주제 하에

38) Melvil Dewey, *Dewey Decimal Classification and Relative Index*, 21th ed., Vol.2(N. Y. : Forest Press, 1996), pp.870-895.

39) 전연경, "DDC 21과 KDC 4의 비교 분석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34권, 제1호(2000), pp.199.

14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34권 제4호)

분류한다.

예 : 어원사전 →812.033<sup>40)</sup>

- 814 어휘<sup>41)</sup>
- 814.3 기본어휘
- 814.4 속어, 관용어
- 814.5 유어, 동의어, 반의어, 동음어
- 814.7 외래어, 약어
- 815 문법, 어법
- 815.1 형태론, 구문론(통어론, 통사론)
- 815.2 명사, 수사
- 815.3 대명사
- 815.4 형용사, 형용동사
- 815.5 동사, 조동사
- 815.6 부사, 접속사, 감동사(감탄사)
- 815.7 조사
- 815.8 대우법(경어법, 하대법)
- 816 문장, 문체, 작문<sup>42)</sup>
- 816.5 논문작성법
- 817 독본, 해석, 회화
- 818 비표준어 : 방언, 언어지리학, 고어 비어, 속어, 은어, 계급어, 신어, 유행어(네트  
즌들의 인터넷 언어)  
지리구분

820(중국어)에는 특별히 채용할 만한 항목이 없으며 830(영어)에서는 앞서 810(일본어)에서 채용한 항목 이외의 공통항목을 뽑아보도록 한다. 사실 대표적인 동양어(일본어, 중국어)와 대표적인 서양어(영어)을 기반으로 하여 공통항목을 설정하면 거의 대부분 언어

40) 「033」은 사전에 해당하는 「표준구분기호」인데 이러한 주기가 없어도 어원사전 등 주제사전은 「해당 주제기호 + 033(사전에 해당하는 표준구분기호)」의 조합이 될 것이다. 그런데도 NDC에는 813.4(고사 속어사전, 관용어사전), 813.5(유어사전, 동의어사전, 반의어사전), 813.6(고어사전), 813.7(신어사전, 유행어사전), 813.9(은어사전, 속어사전) 등 813에서 대부분의 주제사전을 분류하도록 되어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각각 해당주제로 옮긴 다음 필요 시 「033」을 추가하여 기호를 완성해야 할 것이다. 해당 주제로 옮긴다는 것은 813 아래에 나와 있는 해당주제사전 항목들을 삭제만하는 것을 의미한다. 사실 해당주제 즉 고사속어, 관용어, 유어, 동의어, 반의어, 고어, 외래어 등의 항목은 대부분 해당 문헌이 사전이 될 것이므로 NDC처럼 사전들을 813에서 전부 전개해 버리면 거의 필요 없는 분류항목이 된다.

41) 814.6(고어), 814.7(신어, 유행어) 814.9(은어, 속어, 계급어) 등은 비표준어들이므로 818로 이동시킨다.

42) 816.2(수사법), 816.6(서간문, 일기문)은 각 각 901과 901.5로 이동시킨다.

에 무난하게 적용될 것으로 판단된다.

- 831.1 음성, 발음, 음운
- 831.2 모음, 이중모음
- 831.3 자음
- 831.5 정자법, 철자법  
두문자법, 분절법을 포함한다.
- 831.6 약어
- 835.2 명사 : 성, 수, 격
- 835.28 관사
- 835.29 수사
- 835.5 동사 : 態, 法, 時制
- 835.58 조동사
- 835.59 준동사 : 부정사, 분사, 동명사

이상 동양어 및 서양어의 특성을 살린 항목들을 전부 수용하여 모든 다른 언어에 적용할 수 있도록 재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물론 기호는 앞서 언급한 대로 편의상 일단 「1-9」의 형태를 취한다.

〈NDC의 새로운 언어보조표〉<sup>43)</sup>

- 1 음성, 음운, 문자
- 1.1 음성, 발음, 음운
- 1.14 액센트, 인토네이션
- 1.2 문자일반  
모음, 이중모음을 포함한다.
- 1.3 자음
- 1.5 정자법, 철자법
- 1.58 철자개량
- 1.59 외국어, 외래어의 특정언어표기법
- 1.6 약어
- 1.7 구뎃점
- 1.8 특정언어의 로마자표기법
- 2 어원, 의미론
- 3 사전

43) 「810/830」의 전개사항과 가급적 조기성을 가지도록 조치하였다.

일반 언어사전, 즉 특정 언어의 기본어휘사전을 분류한다.

기타 주제사전은 각 주제 하에 분류한다.

예) 독일어 약어사전 → 841.6033 : 84(독일어 기본기호)+16(보조기호 약어)+033(표준구분 사전)

- 4 어휘
  - 4.3 기본어휘
  - 4.4 속어, 관용어
  - 4.5 유어, 동의어, 반의어, 동음어
  - 4.7 외래어, 약어
  - 5 문법, 어법
  - 5.1 형태론, 구문론
  - 5.2 명사: 성, 수, 격
  - 5.28 관사
  - 5.29 수사
  - 5.3 대명사
  - 5.4 형용사, 형용동사
  - 5.5 동사 : 태, 법, 시제
  - 5.58 조동사
  - 5.59 준동사 : 부정사, 분사, 동명사
  - 5.6 부사, 접속사, 감동사
  - 5.7 조사
  - 5.8 대우법 : 경어법, 하대법
  - 6 기초작문 . 생활언어
  - 6.5 기초작문(논문 등)  
여기서는 「영작문법」등 특정 언어의 기본적인 문장작성법을 분류하고 수사학에 해당하는 각 문학 장르별 작법(예 : 소설작법) 및 그것에 수반되는 문장론(은유법, 직유법 등)과 문체론(화려체, 건조체 등)은 900(문학류)에서 분류한다.
  - 6.9 생활언어 : 화법, 연설법, 대담, 좌담법, 토론, 회의법<sup>44)</sup>
  - 7 독본, 해석, 회화
  - 8 비표준어 : 방언학, 언어지리학, 고어, 속어, 비어, 은어, 계급어, 신어, 유행어(네티즌들의 인터넷 언어)  
지리구분
- 945)

44) NDC 809(언어생활)에서 개별 언어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항목들을 골라 낸 것들이다.

45) 9 항목을 비워 놓는 이유는 본표 내에서 이미 다른 주제(예 : 869 포르투갈어, 879 기타 로망스 제어)로 불가피하게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본표 내의 언어학(Linguistics : 801-809) 부문에서는 9 항목이 존재한다. p.13 참조.



#### IV. KDC 언어류 관련부문에 대한 개선방안

KDC의 언어관련 전개부분은 NDC체계를 거의 그대로 따른 것으로 판단되는데, 주기설정 미흡 등 NDC보다 더 많은 문제점이 발견된다. KDC의 가장 큰 결점 중 하나가 「표준구분」을 제외하고는 보조표들이 한결같이 너무나 간략하여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언어공통구분(보조표)도 예외는 아니다. 앞서 NDC에서 조정된 개선방안은 KDC에 거의 그대로 적용할 수 있도록 조치된 것이므로 NDC와 중복되는 내용은 가급적 다시 논의하지 않도록 하고 주기설정 문제 등 NDC에서는 문제되지 않았던 부분들만 중점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언어류 분류와 관련하여 본표(700)내의 언어별 전개사항(710-799)을 보면 자국 우위(한국어 우위) 문제는 별개로 치더라도 많은 문제점이 발견되는데 DDC, NDC 등 타 분류표의 전개사항과 서울대 언어학과에서 제시하는 「語族을 중심으로 한 언어분류」<sup>46)</sup>를 기초로 수정·보완코자 한다.

영어(740)와 독일어(750)는 게르만 어족의 대표적인 언어로 영어(740) 앞에 NDC처럼 <740-750 게르만 제어>와 같은 중앙저록을 마련하고 그 아래 「게르만 諸語 일반→759」의 주기를 설정한 다음, 「759 기타 게르만어」항목을 신설하고 그 아래에 「게르만 諸語 일반은 여기서 분류한다」는 주기를 단다. 마찬가지로 프랑스어(760), 스페인·포르투갈어(770), 이탈리아어(780)는 로망스어족에 속하므로 「760 프랑스어」 앞에 <760-780 로망스 諸語> 및 「로망스 諸語 일반 → 789」를 마련하고, 789에는 표목을 「루마니아어」에서 「기타 로망스어」로 대체한 다음 「로망스 諸語 일반은 여기서 분류한다」는 주기를 설정하고 마지막으로 「789.1 루마니아어」항목을 신설한다. 한편 러시아어 및 슬라브 諸語들을 위한 항목의 위치나 계위가 형평에 맞지 않아 아쉬움이 남는다. DDC를 제외한 대부분의 분류표에서 러시아어 또는 슬라브어족은 영어, 독일어 등과 대등한 階位를 갖기 때문이다. 이상 조정된 언어구분 내용은 KDC의 국어구분(보조표) 및 언어류(800)에도 반드시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언어류(700)의 총류(총괄 항목들)에 해당하는 「702-709」<sup>47)</sup>의 경우 대체로 무난하게 전개되어 있는 편이다. 다만 709(언어사) 아래의 「910-979와 같이 구분한다. 예: 아시아 언어지 709.1」을 삭제하고<sup>48)</sup> 대신 「언어학사 → 701.09」<sup>49)</sup>를 註記한다.

언어학 연구방법에 해당하는 항목들(701.01-701.09)은 앞서 2장에서 소개한 언어학 체계 부분에서 구체적인 항목들이 확정되었으므로 기호관계만 조정하면 될 것이다.<sup>50)</sup>

46) <<http://plaza.snu.ac.kr/~linguist/links-resources.html>> [cited 2003. 8. 15].

47) 기호 階位가 조정되면 「700.01-700.09」가 된다.

48) 「한글의 역사」는 한국어(710) 쪽에서 찾을 것이기 때문이다.

49) 기호 階位 조정되면 「700.9」가 된다.

개별 언어에 적용되는 연구 대상 분야, 즉 「701.1-701.9」(보조표 대상 항목)의 전개 사항들을 보조표 항목에 적합하도록 분석·조정해 보기로 한다. 701.5 중 일부인 고립어, 교착어, 굴절어는 NDC에서처럼 언어학 연구방법분야이지 특정 언어(예 : 영어)에서 취급되는 분야가 아니므로 보조표 및 언어학 연구대상에서는 제외시키는 대신 언어학 연구방법 분야로 移值시킨다. 701.6은 비어 있는데 DDC를 따른 것으로 보이나<sup>51)</sup> NDC처럼 특정 언어의 「기초 작문법」을 분류 할 수 있도록 항목을 살린다. 701.8 의 경우도 NDC와 같이 비표준어가 망라되도록 고어, 비어, 속어, 은어, 유행어(네티즌들의 인터넷언어)를 추가하고 동시에 주기로 「지리구분」 지시한다. 701.9<sup>52)</sup>는 역시 NDC에서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조치하고<sup>53)</sup> 그 대신 NDC의 809(언어생활) 항목 중 보조표에 포함될 항목들을 골라내어 701.6에 포함시킨다.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 전반(언어학 관련 전개부분)을 기호 階位 조정하여 재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700.02-700.09〉

700.02 雜著

700.03 사전

3개 이상의 언어로 된 수 개 언어사전, 즉 多언어사전을 포함한다.

700.04 강연집, 수필집

700.05 연속간행물

700.06 학회, 단체, 기관, 회의

700.07 지도법, 연구법 및 교육, 교육자료

700.08 전집, 총서

700.09 언어사, 언어정책, 언어행정<sup>54)</sup>

언어학사 →700.9

〈700.1-700.9〉<sup>55)</sup>

50) 기호 階位 조정되면 「700.1-700.9」가 된다.

51) DDC에서는 18판까지 이것이 사용되었다.

52) 더욱이 「701.91 의태어」는 문자, 언어에 포함되므로 여기 배치된 것은 부적절하다.

53) 마지막 9항목은 NDC처럼 본표 내의 언어학 부문에서는 살려서 「언어, 문자 이 외의 의사전달」이 된다.

54) 언어정책, 언어행정은 700.2(원래 KDC기호는 701.02)에서 옮겨 온 것이다.

55) 이 부분, 즉 언어학 연구방법분야는 이미 제2장, <언어학 연구방법 영역 대비한 KDC를 위한 새로운 전개표>에서 전개내역이 확정되었으므로 여기서는 열거를 피하고 기호체계만 「700.1-700.9」로 확정한다.

〈701-708〉<sup>56)</sup>

- 701 음성학, 음운론, 문자학  
음역(번자), 표음전사법, 음소학, 발음학 등을 포함한다.
- 702 어원학, 어의학  
언어학적 의미론을 포함한다.
- 703 사전편찬학
- 704 어휘론
- 705 문법  
구문법, 품사론, 언어형태학, 경어법을 포함한다.
- 706 기초작문법, 생활언어<sup>57)</sup>
- 707 번역법, 해석법, 회화
- 708 고어, 방언학  
지리구분
- 709 언어, 문자 이외의 의사전달

## 〈710/790 각 언어부분〉

「710/740」에 전개된 언어학 연구대상 항목(보조표 내에 포함될 항목)들, 즉 要目들의 구체적인 전개사항을 살펴서 모든 개별 언어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항목을 골라 내는 일이 필요하다. 다만 본표 「710/740」의 경우 그 곳에 이미 전개된 항목들은 그대로 사용하게 되고, 다만 나중에 완성된 보조표가 훨씬 상세하므로 빠진 항목들만 기호조합을 통하여 해결하게 되므로 「710/740」 세부항목들과 보조표간에는 상호 助記性을 엄격하게 적용하였으며 나머지 「750/790」에는 새로 생성된 보조표 전체가 강목 이하에 적용된다.

먼저 「710-790 개별언어」 전체에 적용되는 주기사항을 설정하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710/790 각 언어>라는 중앙저록을 마련한 다음 새로이 만들어질 보조표의 전개사항 및 그 적용방법을 비롯한 다음과 같은 주기가 반드시 필요하다.

- ◎ 각 언어는 전체적으로 언어공통구분(보조표)을 적용하여 강목 이하를 전개한다.  
다만 「710-740」의 경우 그 내부에 전개되어 있는 기존 항목들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 ◎ 2개 국어 사전의 경우 이용자에게 상대적으로 덜 알려진 언어에 분류하고 상대어를 부가한다. 예 : 한영(영한)사전→713.4(영국의 입장), 743.1(한국의 입장), 713.4 =

56) 구체적인 세분·전개는 709 항목을 제외하면 p.22 <KDC 언어공통구분(보조표)의 새로운 전개>와 거의 동일하다.

57) 「생활언어」는 NDC에서 채택한 것이다.

(713(한국어사전) + 4(언어구분 보조표에서 영어 해당기호)

「외국어 대비 외국어 사전」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예: 영독사전(한국입장 : 753.4 = 753(독일어사전) + 4(언어구분에서의 영어)

별법 : 도서관에 따라 표제어에 분류하고 해설어를 부가할 수 있다. 예 : 한영사전 713.4, 영한사전 743.1

◎ 多언어사전은 700.03 에 분류한다.

◎ 표준어휘가 아닌 특수어(특정 주제)사전은 해당 주제에서 분류한다.

예 : 한국어 어원사전 : 712.031(712(한국어 어원)+ 031(표준구분 사전기호))

여기에 덧붙여서 분류표 사용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DDC처럼 본표 내의 개별언어 항목 앞에 「\*」를 전부 붙인 다음,<sup>58)</sup> 700 내의 매 페이지마다 하단 부분에 ‘\*는 <710/790 각 언어>에 지시된 대로 분류한다’는 각주를 마련하게 되면 분류하는데 아주 편리할 뿐 아니라 동시에 분류표의 분량을 크게 줄이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게다가 분류표 사용법 부분에서 「주기사항을 먼저 철저하게 읽어야 한다.」는 내용을 안내하게 된다면 더욱 좋을 것이다. 사실 이 논문을 작성하게 된 이유 중의 하나가 바로 KDC 주기 설정의 불합리, 미흡, 소홀, 누락 등을 지적하고 바로 잡고자 한 것이다.

이제 「710-740」에서 공통항목(언어학 연구대상 분야, 즉 보조표 가능 항목)을 골라내어 보기로 한다. 다만 여기서는 NDC 검토 때와는 달리 중복항목은 가급적 피하도록 한다.

먼저 710(한국어) 부분에서 적절한 항목을 골라내면 다음과 같다.

- 711 음운, 음성, 문자
- 711.22 자음
- 711.23 모음
- 711.25 철자법, 맞춤법
- 711.27 외국어의 특정언어 표기법, 외래어의 특정 언어 표기법
- 711.28 특정 언어의 로마자 표기법
- 712 어원, 의미
- 713 사전 (표준어휘사전)
- 714 어휘
- 714.3 기본어, 기초어
- 714.4 속어, 관용어
- 714.5 유어, 동의어, 반의어
- 714.6 동음이의어

58) 예 : \* 792.1 그리스어

- 714.759) 외래어
- 714.960)
- 715 문법, 어법
- 715.1 품사론
- 715.2 명사
- 715.3 대명사
- 715.4 동사, 조동사, 준동사, 동명사, 부정사, 분사
- 715.5 형용사, 수사, 관형사
- 715.6 지정사
- 715.7 조사, 부사, 감탄사, 접속사, 전치사
- 715.8 구문법
- 715.9 대우법 : 공대법, 하대법
- 716 작문
- 717 독본, 해석, 회화
- 717.2 독본
- 717.4 해석
- 717.5 회화
- 719 비표준어 : 고어, 방언, 속어, 신어, 은어, 계급어  
지리구분

720(중국어), 730(일본어), 740(영어)을 검토해 본 결과 아래 몇 개를 제외하고는 특별히 채용할 만한 항목이 발견되지 않았다.

- 741.1 약센트, 억양
- 741.2 이중모음
- 741.5 두문자법, 분절법
- 741.6 약어
- 741.7 구두법

이상에서 KDC의 상세한 언어공통보조표(언어학 연구대상 영역의 세부항목) 마련을 위하여 KDC 내에서 언어학 연구대상영역부분(701-708) 및 본표 내의 언어학 연구대상 부분(710-740)의 관련 항목들을 구체적으로 열거해 보았다.

59) 여기에 있던 新語는 718로 이동시켰다.

60) 여기에 있던 은어, 계급어는 718로 이동시켰다.

이제 이들 전개사항들과 이미 앞서 마련해 놓은 NDC의 새로운 보조표 부분을 상호 비교·분석하여, 상이한 항목들은 가급적 전부 포함시키되 본표와의 助記性도 충분히 고려하여 새로운 KDC 언어공통구분표를 전개하면 다음과 같다. 물론 기호체계는 일단 「1-9」의 형태를 취한다. 이것은 필요에 따라 공통보조표 뿐 아니라 내부보조표로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기존의 KDC 본표 전개부분(710-740) 중 언어학 연구대상부분, 즉 보조표 전개대상부분은 그대로 수용하는 것을 전제로 하였기<sup>61)</sup> 때문에 일단 그 곳들과 조기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KDC의 기존 기호체계 중심으로 전개하였다.<sup>62)</sup>

〈KDC 언어공통구분(보조표)의 새로운 전개〉

1. 음성학, 음운론, 문자학
  - 1.1 음성, 발음, 음운
    - 1.11 음역(번자), 표음전사법, 음소학
    - 1.14 발음학(액센트, 억양, 인토네이션 등)
  - 1.2 문자일반
    - 1.22 자음
    - 1.23 모음, 이중모음
    - 1.25 철자법, 정자법, 맞춤법
    - 1.26 약어(약자), 頭문자법, 분절법
    - 1.27 외국어 및 외래어의 특정 언어 표기법
    - 1.28 특정 언어의 로마자 표기법
    - 1.29 구뎛점
- 2 어원, 의미론, 어의
- 3 사전(표준어휘사전)
 

주제사전은 각 주제 하에 분류한다.

예 : 독일어 약어사전 → 851.603 ; 85(독일어 기본기호) + 16(보조기호 약어) + 03(표준구분 사전)
- 4 어휘
  - 4.3 기본어, 기초어
  - 4.4 속어, 관용어
  - 4.5 유어, 동의어, 반의어
  - 4.6 동음이의어, 동형이의어

61) 여기에 나와 있는 세부항목 중에는 「기타 아시아 諸語-739」, 「포르투갈어-779」 등 보조표 대상항목과는 전혀 무관한 항목들도 많이 있다.

62) 사실 NDC 기호체계가 훨씬 논리적이므로 향후 KDC의 전면 개정 시에는 재고할 필요가 있다.

- 4.7 외래어, 약어
  - 5 문법, 어법
    - 5.1 품사론(형태론)
    - 5.2 명사 : 성, 수, 격
    - 5.28 관사
    - 5.3 대명사
    - 5.4 동사(태, 법, 시제), 조동사, 준동사, 동명사, 부정사, 분사
    - 5.5 형용사, 수사, 관형사, 형용동사
    - 5.6 지정사
    - 5.7 조사, 부사, 감탄사, 접속사, 전치사
    - 5.8 구문법(통사론, 통어론)
    - 5.9 대우법 : 경어법(공대법), 하대법
  - 6 기초작문, 생활영어
    - 6.1 기초작문
      - 논문, 해설, 해제, 초록, 요약문작성 등을 포함한다.
    - 6.2 화법, 연설법, 대담, 좌담법, 토론, 회의법
  - 7 독본, 해석, 회화
    - 7.2 독본
    - 7.4 해석, 번역
    - 7.5 회화법
  - 8 비표준어 : 방언학, 언어지리학, 고어, 속어, 비어, 은어 계급어, 신어, 유행어(네  
티즌들의 인터넷언어 등)  
지리구분
- 963)

## V. 결론 및 제언

이상에서 연구한 결과를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언어공통구분(보조표)을 아주 상세하게 전개하였는데, 학위논문, 학술지기사(논문 성격) 등 세밀한 주제들도 분류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장기적으로 KDC가 명실공히 국내 유일의 표

63) 보조표에서는 이 항목을 삭제한다.

준분류표로 거듭나는데 일조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향 후 KDC가 내부보조표를 채용하는 시스템으로 발전한다면 이것을 언어류(700) 내의 적당한 곳에 위치시키면 될 것이다.

2) 기호체계가 불합리하게 형성되어 있어서 논리에 맞게 과감하게 階位를 재조정하였다.

3) 필요한 곳에는 구체적인 주기를 설정하였다. KDC의 가장 큰 취약점으로 지적되는 것이 주기 미흡으로 판단되는데 그로 인해 분류불가한 곳이 너무나 많이 발견된다.

4) 언어전개 부분의 미흡한 부분을 수정·보완하였는데 이 부분은 국어구분표(보조표) 및 문학류(800)에도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분류법(표)는 하나의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KDC는 단순한 표에 불과하므로 「한국십진분류법」이라는 명칭이 무색할 정도다. 앞으로는 KDC에 관한 연구로서 주제개념의 전개 타당성뿐만 아니라 유용한 분류도구가 될 수 있도록 분류 체계, 도구, 장치 측면에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필자는 이러한 관심의 일환으로 내부보조표에 대한 연구를 계획하고 있다. 본 연구 내용 가운데 주제개념의 수정·보완부분은 개인에 따라 견해차가 발생할 수도 있어서 정답이라고 단언할 수 없으나 시스템 측면에서의 개선방안은 획기적이라고 확신하는 바이다.

본 연구는 실제적이고 구체적으로 KDC 개정에 일조하기 위한 것으로 지면이 허락하였다면 연구결과를 토대로 개선된 KDC 언어류(700)의 구체적인 전개가 가능했을 것이다. 본 논문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관련 분류표들의 해당부분과 비교·대조하면서 읽어 나가야 할 것으로 본다.

〈참고문헌은 각주로 대신함〉